

〈Editorial〉

“지질학적/암석학적 관점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명산” 특별호를 발간하며

이 승 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

The Mountains of Korea from the Geological and Petrological Point of View

Seung-Gu Lee

Geology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한국암석학회는 지난 2010년 2월 “자연유산으로 본 우리 명산” 그리고 2011년 2월에는 “지질자원으로 본 우리 명산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지질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 혹은 한라산을 바라볼 때, 이 개개의 산들이 경관이 수려한 명산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어떤 암석으로 구성되어있고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가지지 못하는 편이다. 특히 화산분화와 같은 특별한 지각활동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지질 특성에서는 제주도나 울릉도가 과거의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리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2010년과 2011년 연속으로 개최된 “우리 명산”, “우리의 명산지” 심포지엄은 지질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명산들의 생성과정과 지질학적 특징을 일반인들에게 대중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추후 조차 즉 논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번 특별호의 저자들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많은 명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명산의 귀중한 가치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2000년 말에 시작된 국제 프로그램인 지질공원이 최근 유네스코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서, 우리나라도 2011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지질공원 제도가 도입되고 제주도와 경북 청송군 일대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관광과 연계하여 지질학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Lee et al., 2009; Woo, 2014). 이번 특별호에서는 An and Hong (2017)과 Hwang et al. (2017)에 의해 제주도와 청송군의 형성과 지질 특성이 소개되어 있다.

지질학 혹은 암석학은 수학, 물리학, 화학과 같은 분야와는 다르게 자연을 직접보고 접하면서 혹은 경험하면서 배우는 자연과학 분야이며, 우리 생활과 삶에 밀접하고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학문이기도 하다. 이는 일반인이 지질학을 좀 더 쉽고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는 자연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질학 특히 암석학의 흥미로움을 일반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개최된 심포지엄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지질학적/암석학적인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명산’이라는 주제로 특별호를 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너무 깊게 접근하게 되면 비전문가로선 어렵게 느낄 수 있어, 가능한 한 학술적인 깊이를 조금 낮추고자 하였다. 이번 명산과 관련된 특별호는 26권 3호와 4호로 2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 호는 5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Hwang et al.(2017a, 2017b)은 경상북도의 국립공원인 주왕산과 도립공원인 청량산의 지형경관의 형성 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저자들은 주왕산과 청량산의 지형적 형성과정을 지질시대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특히 주왕산과 그 주변은 2017년에 세계지

질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제주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세계지질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이번 주왕산에 관한 논문은 향후 세계지질유산으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데 활용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Oh et al. (2017)은 전라북도 마이산과 그 주변 지역의 형성과정을 소개하였다. 저자들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 위치한 마이산은 덕유산과 함께 현재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마이산의 형성과정과 더불어 수계와 생태계를 연관시켜 기술해주고 있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된 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승격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이 논문은 유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im and Yun(2017)은 비록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산중의 하나인 백두산 천문봉의 형성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 다른 논문들과 비교해 볼 때, 지질학적/암석학적인 전문 내용보다 많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백두산과 관련된 참고문헌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백두산의 형성과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hn and Hong(2017)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계자연유산이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일대의 화산활동을 서술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 논문에서 백록담의 형성과정을 모식도로 제시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묘사해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질학은 우리의 주변에 있으며 인간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연 과학 분야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쉽게 접하는 산들은 지질학자에게는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대상이 되지만, 일반인들 특히 도시인들에게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평안함을 찾는 쉼터의 역할을 한다. 이번 “지질학적/암석학적 관점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명산” 특별호가 지질학자뿐만 아니라 산을 찾는 많은 일반인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산들을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하는 과학적 호기심 속에서

다시 보고 다시 찾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특별호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특히 이번 특별호 발간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도맡아주신 손문 편집위원장과 하상민 편집간사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논문을 투고 해주신 저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논문 심사 과정에서 건설적인 비평과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References

- An, U.S. and Hong, S.S., 2017, Volcanological History of the Baengnokdam Summit Crater Area, Mt. Halla in Jeju Island, Korea. The Journal of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26, 221-234.
- Hwang, S.K., Son, Y.W. and Son, J.D., 2017, Topographical Landscapes and their Controlling Geological Factors in the Cheongryangsan Provincial Park: Lithologic Difference and Faults. The Journal of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26, 167-181.
- Hwang, S.K., Son, Y.W. and Choi, J.O., 2017, Geological History and Landscapes of the Juwangsan National Park, Cheongsong. The Journal of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26, 235-254.
- Kim, J. and Yun, S-H., 2017, Petrological Characteristics of Alkali Rhyolite in the Cheonmunbong of the Mt. Baekdu. The Journal of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26, 183-200.
- Lee, S., Sagong, H., Choi, J., Moon, Y., Lee, M., Kim, E., Choi, D., Lee, K. and Cho, H., 2009, Concepts and Implications of UNESCO Geoparks. Policy report 2009-8, Korea Environment Institute, 139 p.
- Oh, C., Lee S. and Lee, B., 2017, The forming process of the Maisan and famous mountains around it and its effect on the change of mountain ranges, water system and ecosystem, The Journal of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26, 201-219.
- Woo, K.S., 2014, Qualification and prospect of national and global geoparks in Korea.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0, 3-19.